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영향 요인

최인희*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Hee Choi*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시의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수행되었으며 대상자는 47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로 분석하였으며, descriptive statistics, t or F tes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 역량은 20대가,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있는 경우, 3학년 이상의 학년에서 문화적 역량이 높았고, 문화적 역량의 예측요인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 자기효능, 외국어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였으며, 자기역량과는 상관관계가 있었다($r=.230, p=.000$)의 . 자기효능감 증진전략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petenc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y strengthening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9.0 from 470 subjec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r=.230, p=.000$).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ere multicultural experience through mass media, self-efficacy, fluentness of foreign language. This study suggest that It need to develop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strategy improving self-efficacy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Nursing, Self-efficacy,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을 다문화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2020년 11월 현재 인구수는 5,183만명이며 이 중 170만명이 외국인으로 총 인구의 3.3%에 해당하며[1], 다문화 가구는 37만가구로 일반가구의 1.8%, 가구원은 109만명으로 총 인구의 2.1%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족의 25~39%가량은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일자리, 몸이 아플 때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다고 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는 문화적 역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3].

문화적 역량이란 다른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나 판단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4]. 다문화인구의 건강취약문제는 초기 건강검진부터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5], 다문화가족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030)

*Corresponding Author : In-Hee Choi(Gwangju Health Univ.)

E-mail: ihchoi@ghu.ac.kr

Received Sep 04, 2022

Revised Oct 15, 2022

Accepted Nov 30, 2022

우선순위 대상자로서[6], 보건의료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문화가족을 접할 기회가 많은 상황이다.

간호대학생은 추후 지역사회 내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직면하게 될 예비 전문간호인력으로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 한다[4][7].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접하는 간호사에게 문화적 역량은 중요한 핵심역량이며[8]. 의학, 교육학, 심리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9].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낮은 수준[10-11]으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문화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12], 다문화 인식과 문화적 공감[13-14], 문화적 민감성[15], 자기효능감[7][10][16]이 문화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문화적 역량이란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문화적 기술(cultural skill), 문화적 경험(cultural experience),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을 포함하는 능력이므로[4][17],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18].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사람은 다문화 대상자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19], 자기효능감 증진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7][19].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사람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도 자신의 실무 추진에 있어서 강한 확신감을 보임으로써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 역량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 간호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2년 10월 4일~25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구글설문지를 반 대표에게 먼저 전달한 후 전체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유의지에 의해 응답하게 하였다. 총 대상자 723명중 472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은 65.3%였으며, 이중 2명은 제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제외하고 최종대상자 총 4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측정변수

문화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대상자 특성으로 확인하였으며 변수는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표 1] 대상자 특성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Age(years)	Below 19
	20-29
	Above 30
Grade	Below 2 nd degree=1
	Above 3 rd degree=2
Gender	Men=1
	Women=2
Religion	Yes=1
	No=2
Foreign friends	Yes=1
	No=2
Experience of overseas travel & residence	Yes=1
	No=2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1
	No=2
Fluentness of foreign language	Fluent=1
	Not fluent=2
Multicultural experience through mass media	Yes=1
	No=2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로 박이[20] 사용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 6문항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저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과 $.7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78$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Cronbach's $\alpha=.89$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일부 문항은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2.3.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의[17] 문화적 역량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로 구성되어있고 개발당시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 요인별로 $.76\sim.91$ 의 분표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였으며 요인별로 문화적 지식은 Cronbach's $\alpha=.91$, 문화적 지식은 Cronbach's $\alpha=.89$, 문화적 경험은 Cronbach's $\alpha=.74$, 문화적 인식은 Cronbach's $\alpha=.91$, 문화적 민감성은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자기효능 및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는 t or F test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나이는 20대가 63.0%, 2학년 이하 저학년이 61.3%, 여자가 85.7%, 종교가 없는 경우가 71.7%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외국인 친구가 없는 경우가 85.7%, 외국여행 및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가 54.5%,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71.3%, 외국어가 유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6.6%,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있는 경우가 73.8%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표 2].

3.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대상자의 특성과 문화적 역량을 확인한 결과 20대가, 3학년 이상의 학년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 외국여행 및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2].

3.3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79.61점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59.52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20.10점 이었다. 문화적 역량은 80.41점이었으며 지식은 23.26점, 기술 16.86점, 경험 9.91점, 인식 15.3점, 민감성 15.06점으로 경험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표 3].

[표 3] 문화적 역량과 자기효능감 정도

[Table 3] The mean of Cultur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Variables	No. of Items	M±S.D
Cultural Competence (total)	27	80.41±13.01
Knowledge	9	23.26± 5.85
Skills	6	16.86± 3.93
Experience	4	9.91± 2.72
Awareness	4	15.31± 3.10
Sensitivity	4	15.06± 2.80
Self-efficacy(total)	23	79.61±11.49
General Self-efficacy	6	59.52± 8.99
Social Self-efficacy	17	20.10± 3.98

3.4 문화적 역량과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을 확인한 결과 $r=.23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하부 영역을 보면 문화적 기

[Table 2]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ompetence of the Subjects

[표 2] 대상자의 특성과 문화적 역량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n	%	m	S.D	t or F	ρ
Age(years)	below 19	122	26.0	78.41	10.731	3.493	.031
	20-29	296	63.0	81.61	14.082		
	above 30	52	11.1	78.21	10.602		
Grade	below 2 nd degree	288	61.3	78.97	12.722	-3.041	.002
	above 3 rd degree	182	38.7	82.68	13.159		
Gender	men	67	14.3	77.93	14.702	-1.690	.092
	women	403	85.7	80.83	12.675		
Religion	Yes	133	28.3	79.26	11.943	-1.206	.229
	No	337	71.7	80.86	13.392		
Foreign friends	Yes	67	14.3	85.78	14.764	3.699	.000
	No	403	85.7	79.51	12.489		
Experience of overseas travel & residence	Yes	256	54.5	80.89	13.357	.876	.382
	No	214	45.5	79.83	12.580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35	71.3	81.47	12.411	2.826	.005
	No	135	28.7	77.76	14.076		
Fluentness of foreign language	Fluent	313	66.6	78.49	11.804	-3.701	.000
	Not fluent	157	33.4	83.10	13.562		
Multicultural experience through mass media	Yes	347	73.8	82.12	12.916	4.909	.000
	No	123	26.2	75.58	12.052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표 4] 문화적 역량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Variable	Cultural Competence (total)r(<i>p</i>)	Sub domain of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knowledger(<i>p</i>)	cultural skillr(<i>p</i>)	cultural experiencer(<i>p</i>)	cultural awarenessr(<i>p</i>)	cultural sensitivityr(<i>p</i>)
Self-efficacy (total)	.230(.000)	.164(.000)	.244(.000)	.053(.253)	.120(.000)	.198(.000)

술($r=.244, p=.000$), 문화적 민감성($r=.198, p=.000$), 문화적 지식($r=.164, p=.000$), 문화적 인식($r=.120, p=.000$)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문화적 경험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3.5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 학년, 성별, 종교, 외국인 친구, 외국여행 및 거주경험, 다문화교육경험, 외국어 유창성,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주요변수를 확인하였다. 베타계수로 본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기효능감, 외국어 유창성 순이었으며, 외국어 유창성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9.970(.000)으로 유의하였고 $R^2=.117$ 로 11.7% 설명력이 있었다. 분산팽창계수(VIF)가 1.011-1.017로 10보다 크지 않아 변수들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 값은 2.049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표 5]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ariables	B	S.E	β	t	<i>p</i>
(Constant)	60.898	4.101		14.848	.000
Multicultural experience through mass media	5.729	1.268	.201	4.518	.000
Self-efficacy	.219	.049	.199	4.479	.000
Fluentness of foreign language	-3.773	1.199	-.140	-3.148	.002
Adj $R^2=.117, F=19.970(p=.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화적 역량은 다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없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으로[8],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cultural knowledge),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건강사정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는 기술(cultural skill),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기회 및 다문화와 관련된 학습경험(cultural experience),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cultural awareness),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을 포함한다[4][1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을 보면 20대에서, 3학년이상에서 그리고 여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다. 문화적 특성으로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문화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김의 연구[11]에서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1학년 보다는 3학년이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외국어가 유창한 경우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던 것은 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차이가 없었던 것도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3학년 이상 학년에서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는데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등으로 다문화 대상자를 경험할 기회가 많고

다문화 관련 학습경험에 노출될수록 문화적역량이 높다는 Han의 연구 결과[21]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11][22-23], 학년[11][22], 연령[24], 외국인친구[11][22][24-25], 외국체류경험[22][26] 등은 모두 연구에 따라 유의미 또는 무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일관성이 없으므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연구[11][24][27]와 다른 결과이나, 외국어 실력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연구[22]와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다른 언어권 대상자와 소통하는데는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수단이 사용되며[12],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열린태도로 임하는 것이라고 한 결과[27]를 볼 때 외국어 능력은 소통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라는 하나 외국어능력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역량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대상자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 다문화 대상자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11][22]를 볼때 접촉의 기회가 많을수록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경험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았던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다. 다문화 교육경험은 여러 연구[12][24][26][28]에서 문화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더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8], 예비 간호사로서 다문화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29]. 문화적 교류 기회를 갖는 것은 문화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가장 우선적인 변수였던 결과를 볼때 다문화사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매체의 프로그램 편성시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고 문화적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230, p=.000$)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18],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다른 문화 집단의 관습과 전통, 신념,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에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30].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28],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하였다[26], 여러 연구에서[24][26][28]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변수라고 제시하고 있는 바[26-28],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전략으로 예비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되므로[16],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내에서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있는 경우, 3학년 이상의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91, p=.000$).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기효능감, 외국어 유

창성 순이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1.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22.
- [3] C-I. Jeffrey, 'Empathy and competence',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188, no.7, pp.414-416, 2008.
- [4] S-J. Yang et al. 'Community Health Nursing' Hyunmoonsa, 2022.
- [5] H-R. Kim, 'Health Problems and Policy Tasks of Multicultural Families', *Issue & Focus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185, 2013.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of the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Service: Visiting Health Management", 2022.
- [7] W-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17, no.4, pp.222-229, 2011.
- [8] H-M. Son, M-J. Je and B-J. Yi, 'Integrative Review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9, no.4, pp.25-47, 2014.
- [9] E-E. Suh, 'The model of cultural competence through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5, no.2, pp.93-102, 2004.
- [10] S-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7, pp.334-345, 2014.
- [11] D-H. Kim and S-E. Kim,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22 no.3, pp.159-168, 2013.
- [12] J-Y. Kim,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t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5, pp.367-374, 2020.
- [13] J-H. Lim, 'The Path Analysis of Multicultural perception, Cultur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393-402, 2017.
- [14] K-H. Kim,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8 pp.241-247, 2020
- [15] H-J. Park and N-H. Kim,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ensitivity, Empath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4, pp.487-498, 2017.
- [16] E-H. Peek and C-S. Park.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43 no.5, pp.690-696. 2013.
- [17] S-Y. Han, H-I. Chung.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45, no.5, pp.684-693, 2015.
- [18] A. Bandura,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5, pp.729-735, 1989.
- [19] L. Dawson and S. Lighthouse, 'Assessment of self-efficacy for cultural competence in prescribing', *The Journal of Nurse Practitioners*, no.6, pp.44-48, 2010.
- [20] S-Y. Park,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 [21] S-Y. Han,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 Instruction*, Vol.16, no.4, pp.73-86, 2016.
- [22] Y-A. Choi and T-W. Le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0, no.3, pp.597-610, 2019.
- [23] S-Y. Kim,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pathy Abilit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8, no.2, pp. 95-104, 2020.
- [24] M-K. Cho and H-Y. Jang,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5, pp.2795-2808, 2015.
- [25] S-H. Choi,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 pp. 3379-3390, 2017.
- [26] H-K. Jeon and Y. Ko,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6, no.2, pp.157-166, 2020.
- [27] E-J. Song, Y-K, Yang, S-K and Park, 'Eff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25 no.4, pp.347-355, 2016.
- [28] Y-S. Seo and Y-C. Kwon,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6, pp.415-423, 2014.
- [29] S-H. Park, J-H. Lee and E-J. Kim.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6, pp.123-145, 2011.
- [30] D-H. Cha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3.